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비용 인구구조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보험도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HIRA정책동향도 이러한 논의에 일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 주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입니다. 심평원은 2001년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시작하여 2007년에는 22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적정성 평가의 의미에서 요양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난을 준비하였습니다. 집필에는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의 이선희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연구팀의 김남순 팀장, 대한병원협회 보건부의 박상우 부장,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이상일 교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HIRA 연구'에는 정책과 쟁점의 주제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연구했던 '질평가 우선순위 연구'를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관련 영역을 검토하여 국가 차원의 질평가 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향'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평가와 보정을 위한 방법론, 환자만족도 평가 도구 중의 하나인 HCAHPS, 일본의 완화케어병동 수가제도를 실었으며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개혁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실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행위별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최근 심평원에는 진료비의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건보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형선